

## Iliac bone graft와 implant를 이용한 하악 구치부 골결손부의 보철수복 증례

주민아, 정창모, 전영찬, 임장섭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외상이나 종양수술 등으로 인하여 하악골 결손부가 생긴 경우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보철수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원인으로는 지지조직의 상실, scar tissue의 존재, 불규칙한 조직형태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하악골의 continuity가 상실된 경우에는 불규칙한 악골운동, 상하악 관계의 변화, 저작효율 감소, 발음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능장애가 동반되어 일어난다.

과거부터 이러한 골 결손부를 외과적으로 재건하기 위하여 alloplastic material, autogenous 또는 allogenic bone graft 등을 이용한 다양한 술식이 사용되어 왔으나 만족할만한 보철물 지지조직의 재건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여러가지 bone graft와 함께 implant를 이용한 구강기능회복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implant의 식립시기에 따라 bone graft와 동시에 implant를 식립하는 immediate implantation과 bone graft 후 6-9개월이 경과한 다음 implant를 식립하는 delayed implantation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다수의 임상보고에 의하면 graft한 골조직에 식립된 implant의 성공률 역시 일반적인 implant 시술과 마찬가지로 성공률이 높으며, graft bone에 식립된 implant는 상부 보철물의 지지, 유지 및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graft bone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raft bone에 식립된 implant를 이용한 보철 수복과정에서 가철성 또는 고정성 보철물의 선택은 통상적인 implant 치료와 마찬가지로 주로 implant의 위치나 갯수, implant 주위 연조직 상태, 대합치간 공극, 환자의 구강위생능력과 만족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증례발표에서는 외상이나 종양으로 하악 구치부 골결손부를 가진 환자에서 iliac bone graft와 implant를 이용하여 보철 수복한 증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